

재교육 자료집 《 전 초 》

1. 전초란 무엇인가 / 전초의 의미	5
1) 전초	5
2) 먼저 방향을 말해 주는 것	6
3) 그 주의 말씀이 '전초'다	6
4) 전초와 실제	6
2. 전도와 전초	8
1) 전도 : 연결 - 전초 - 가르치기 - 관리	8
2) 전도해 온 자들에게 제대로 전초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8
3) 전도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고, 과감하게 전하고 전초하라	8
3. 전초는 왜 해야하는가 / 전초의 필요성	9
1) 항상 하나님은 전초 해 놓고 본 역사를 펴신다	9
2) 하나님은 항상 미리 행하신다	9
3) 정신적인 전초가 되어야 육적인 세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9
4) 아무리 급하지만 전초를 하라	10
5) 전초하고 완전히 준비하고 예비한 다음에 하도록 하여라	10
6) 신입생들이 오면 꼭 멋있게 전초를 해 줘야 됩니다	11
7) 자기의 무지와 고통에 대해서 먼저 전초하고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	11
8) 제대로 전초하고 인식시키고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	11
5. '전초'의 방법	13

1) 말을 잘 해야 됩니다	13
2) 전초 할 때 말조심 해야 됩니다	13
3) 아무나 스스로 전초하면 안 됩니다	13
4) 전문가가 전초 해야 됩니다	14
5) 처음에 호기심 많을 때 귀히, 확실히 가르쳐라	14
6)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데우고 하여라	14
7) 극의 생각을 가지고 극으로 뜨겁게 행하기	15
8) 두 개를 해야 한다 : 설교 전초도 잘하고 본 설교도 잘하기	15
9) 두 겹줄로 전초	16
10) 강의하기 전에 먼저 100% 전초하라	16
11)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먼저 전초해 주고 해야 된다	17
12) 예술인 <전초하는 사명자들>	17
13) 전초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빨리 확인해야 한다	17
 6. 잘못된 전초	 19
1) 전초를 잘못하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	19
2) 자기를 나타내는 전초	19
 7. '전초'와 성경인물	 20
1)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초	20
2)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시대 중심인물들의 전초	20
3)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20
4) 요셉	21
5) 전초자 <세례요한>	21
 8. '전초'와 <말씀> <성경>	 23

1)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성경	23
2) 성경은 하나님의 녹음 테이프	24
9. '전초'와 <하나님> <예수님>	25
1)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5
2) 가장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	25
3) 하나님을 생각하라 찾아라	25
10. '전초'와 <선생님>	27
1) 인생길,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27
2) 먼저 인간의 도리와 이치와 법도를 배워야 한다	28
3) 오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랑	29
4) 조건을 세우는 인생	31
5) 성경을 귀하게 보고 실천하며 배웠다	33
11. '전초'와 <월명동>	35
12. '전초'와 <인생>	37
13. '전초'와 <사람> <인간>	39
14. '전초'와 <정신 생각 마음>	42
1) 생각에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42
2) 마음을 두드려라	43
15. '전초'와 <가치성>	44

1)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44
2) 가치에 눈을 뜬 자	44
3) 바이올린과 영혼의 가치	45
4) 가치를 알아본 자가 주인이 된다	45
 16. '전초'와 <시간>	47
1) 일생 100년은 하루도 안된다. 하나님을 찾고 사는 인생	47
2) 하루가 일생 같다. 매일 잘해야, 매일 성공하는 것이다	48
3)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 입니다	48
 17. '전초'와 <사랑>	50
1) 아가페 사랑	50
2) 사랑하라	51
 18. '전초'와 <성공> <실패>	53
1) 인생 삶 속에서 <성공과 승리>	53
2) 성공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54
3) 영원토록 성공한 자	54

1. 전초란 무엇인가 / 전초의 의미

1) 전초

1. <전초>는 ‘목적에 두고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어 주는 단계’이다.
2. <전초>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두고 차원 높게 올라가게 해 주는 디딤돌’이다.
3. <전초>는 ‘문을 열게 위치를 가르쳐 주는 단계’다.
4. <전초>는 ‘막힌 귀를 열어 주는 일’이다.
5. <전초>는 ‘먹기 전에 먼저 맛을 보게 해 주는 것’이다.
6. <전초>는 ‘잠을 깨우는 격’과 같다.
7. <전초>는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하는 것’과 같고, <본론>은 ‘하고자 하는 말을 대화하는 것’과 같다.
8. <전초>는 ‘말할 것을 두고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것’이다.
9. <전초>는 ‘마음 문을 조금 열어 주어 그리로 밖을 내다보게 하여 앞정원에 누가 왔는지 보게 해 주는 것’이다.
10. 전초를 안 하면, 귀와 마음이 ‘문’을 못 찾고 ‘집 근처’만 뱅뱅 돌다가 만다.
11. 전초를 안 하고 본론부터 말하는 자는 정말 말을 지혜 없이 하는 자다.
12. <전초>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첫인사를 하는 것같이 중하고, 화장하기 전에 기본 화장을 하는 것같이 중하고, 관광지에서 안내하는 것같이 중하고, 목적지에 가기 전의 표지판같이 중요하다.
13. 전초를 안 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는 여행 갈 때 여권을 빠뜨리고 가는 자와 같다.
14. 전초를 안 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는 편지를 쓸 때 자기소개를 안 하는 자와 같아서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없다.
15. <전초>는 마치 수정 동굴 ‘입구’를 보여 주며 말해 주는 격이다. <근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정 동굴의 5미터, 10미터, 20미터, 30미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16. 전초 없이 말하는 자는 마치 관광객은 산 너머에 있는데 자기 혼자

수정 동굴에 와서 수정 동굴에 대해 설명하는 격이다.

2) 먼저 방향을 말해 주는 것

전초란, 먼저 방향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을 가기 전에 먼저 같이 가는 애인이나 친구나 자기 식구들에게 ‘오늘은 등산 간다. 쇼핑 간다. 축구 구경 간다. 야구 구경 간다.’ 하면서 그 날 할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을 말해 주고 가지고 갈 것을 말해 줍니다.

이렇게 미리 무엇을 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말해 주고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전초’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참여하고 보는 것은 전초한 것에 대한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본 말씀’입니다.

3) 그 주의 말씀이 ‘전초’ 다

• <그 주의 말씀>은 : <앞서 깨달아야 될 것>으로 <전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생활 속에서 깨달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다음 것>으로 연결되어,

생활 속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 이것이 <실제>입니다.

→ 이렇게 <앞의 것>을 깨달으면,

<그다음 것>이 ‘실제 삶’으로 연결됩니다.

4) 전초와 실제

• <앞의 것>은 ‘전초’ 이고, <그다음 것>은 ‘실제’입니다.

<앞의 것>은 <그다음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것>을 깨달아야,

<그다음 것>도 “이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 이해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 길>로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게 됐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이었습니다.

▶ 여기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 것>은 ‘전초’ 이고,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실제’ 입니다.

▶ ‘내가 왜 <이 길>로 가지?’ 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이 길’ 로 가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 이와 같이

<오늘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할 때,

<그다음>도 연결돼서 ‘하나님이 함께하심’ 을 깨닫게 됩니다.

2. 전도와 전초

1) 전도 : 연결 - 전초 - 가르치기 - 관리

★ 전도할 때는 ‘처음부터 말씀과 설명을 잘해 주기.’입니다.

처음에 잘못 가르치면, 영원히 다시 못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전문가와 같이 잘 관리하기.

교역자들이 목숨 걸고 관리하기.’입니다.

★ 연결 - 전초 - 가르치기 - 지혜롭게 잘 관리하기

이것이 <전도의 생명>입니다.

2) 전도해 온 자들에게 제대로 전초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말씀을 정말 잘 전달해야 됩니다.

애간장 태우며 전도해 온 자들에게도 그냥 말씀을 전하지 말고,

제대로 전초하고 인식시키고 말씀을 듣게 하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절대 제대로 해야 잘됩니다.

3) 전도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고, 과감하게 전하고 전초하라

전도하러 가서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과감하게 전하고, 전초하고,

희망 있는 얘기를 해 주고, 소망 있는 얘기를 하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온다는 것입니다.

3. 전초는 왜 해야하는가 / 전초의 필요성

1) 항상 하나님은 전초 해 놓고 본 역사를 펴신다

세레 요한은 항상 본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와서 외친다.
항상 하나님은 전초 해 놓고, 그다음에 본 역사를 펴신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전체가 시대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 모두 말씀을 듣고 행하며
너희 모두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 되어, 좋아하신다.

2) 하나님은 항상 미리 행하신다

1.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두고 미리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할 때 미련 없이 마음을 쏟아서 하여라.
2. 하나님이 왜 미리 행하시겠느냐.
그 일의 합당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3. 어제든 어떤 일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은 미리 행하신다고 하셨기에 이를 깨닫고 할 때 끝장나게 행했다.
4. 어떤 일의 전초를 다 하고 나서 그 일을 조금 행했으면,
조금만 행했어도 전초가 아니고 헛을 두고 행한 것일 때가 많다.
5. 어떤 일은 헛인 줄 알았더니, 전초인 것도 있다.
6. 항상 성령님도 미리 행해 놓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크게 하게 하신다. 전체를 모두 그리 행하신 것을 깨닫고 행하여라.

3) 정신적인 전초가 되어야 육적인 세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정신적인 세계를 전초 하고 만들고 해야
육적인 세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를 만들어야 자기 육적인 세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세계가 먼저 전초가 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4) 아무리 급하지만 전초를 하라

여러분, 순서 있게 전초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지만 전초를 하라.

아무리 급하지만 바나나 껍질을 까서 먹어라.

아무리 급하지만 모든 과일은 껍데기 까서 먹어라.

아무리 급하지만 씹고서 넘겨라.

급하면 반만 먹지. 반만 먹고 가면 되지 않느냐.”

씹지도 않고서 한 그릇 다 먹는 것보다

반만 먹더라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순서 있게 모든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뱃속에 어린아이도 제대로 커서 태어나야 정상이며 건강합니다.

급하다고 4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배를 꼭 눌러 나오라고 하여 태어나면, 지능이 모자라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합니다.

섭리에 말씀을 듣고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도 강의를 급하게 하여 기른 자는 수준이 낮아 제대로 큰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놓고 운명을 좌우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생을 살 때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삶의 무기로 삼으며, 삶에 있어서 힘과 지식과 자본으로 쓰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 급히 가르치면 안 됩니다.

5) 전초하고 완전히 준비하고 예비한 다음에 하도록 하여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했습니다. (마 7:6)

“이 거룩한 곳에 아무나 부르지 말아라. 거룩한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시대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라.

전초하고 완전히 준비하고 예비한 다음에 하도록 하여라.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천한 취급을 받느니라.

준비하고 예비하라.”

6) 신입생들이 오면 꼭 멋있게 전초를 해 줘야 됩니다

신입생들이 오면 먼저는 꼭 멋있게 전초를 해 줘야 됩니다.

지루하게 하지 말고 연구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듯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 강사라도 제대로 말을 못 하면 전도해 온 자들이 대 실망 하고 듣는 자도 실망하니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모두 좋은 방법과 아이템이 있으면 강사들에게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7) 자기의 무지와 고통에 대해서 먼저 전초하고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

사람이 무지해서 사고 나고,

무지하면 고통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신적인 불안, 두려움, 고통,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런 고통으로 곱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게 생각합니다.

우리 섭리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먼저 그런 것을 전초하고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8) 제대로 전초하고 인식시키고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말씀을 정말 잘 전달해야 됩니다.

애간장 태우며 전도해 온 자들에게도 그냥 말씀을 전하지 말고,

제대로 전초하고 인식시키고 말씀을 듣게 하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절대 제대로 해야 잘됩니다.

◆ 말을 잘 들으려고 해도 신경이 제대로 안 깨어 있으면,
안 들리고, 이해를 못 합니다.

◆ 신경이 예리할 때, 마음이 흥분됐을 때는 <집중도>가 제일 강합니다.
곧 ‘뇌신경, 생각, 몸신경이 모두 집중됐을 때’ 입니다.
이때가 제일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느끼고, 잘 이해되고,
뇌에도 잘 저장되어 잘 외워집니다.

◆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전초’를 하는 것입니다.
<전초>는 ‘잠자는 신경과 생각을 깨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로 <전초>를 하여 ‘뇌신경’과 ‘생각’을 풀어 주고,
‘잠자는 것 같은 굳은 뇌’를 깨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목적>을 향해 행하면,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쭉쭉 흡수되어 들어가듯이 합니다.

5. ‘전초’의 방법

1)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의 능력, 말의 권능, 말의 세력, 말의 처세술,
말의 기적, 표적을 보이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진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감탄하고 녹아지고 희망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전초에서 끝나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너무 잘 하니까 전초만 했는데,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야~ 시대가 그렇게 되었나?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까? 벌써 오실 자가 왔단 말입니까? 그래서 뼈꼭새가 울고 두견새가 사라졌나 봅니다. 그래서 희망찬 태양이 떠오르는 환경으로 뒤바뀌었는가 봅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게 기도 좀 하라는 것입니다.

2) 전초 할 때 말조심 해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 말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전초 할 때도 말조심해야 됩니다.

몸부림쳐 전도하여 신입생들을 먼 길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신입생이 있는데
욕심 부리고 그냥 준비 없이 전초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서 가버립니다.

3) 아무나 스스로 전초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초는 교단 교육국에서 지도하여 완벽히 준비 된 자가 전초 해야 합니다. 아무나 스스로 전초하면 안 됩니다.

대중 설교는 허락이 없는 자는 모두 금합니다.

전초 할 자는 사전에 교단에 원고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모르는 자들은 내게 전초 하는 법을 배운 자에게 배워서 하도록 하세요.

강의한 내용을 후에 따로 챙겨듣기라도 해서 배운 후에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아직도 전초 감각이 없어요. 무조건 말씀을 내놓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전초 하는 자도 교회 목회자가 책임지고 하고,

기타 목사들이 있으면 완벽하게 하는 자만이 전초를 해야 됩니다.

4) 전문가가 전초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만 단상에 서야 합니다.

특히 청중 강의는 허락된 자만 단상에 서야 합니다.

청중이 모이든지, 신입생들이 100명, 1000명 모이는 전도 집회 때는 사전에 파악하고 전문가가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입생 한 명이 있어도 전문가가 전초 해야 됩니다.

5) 처음에 호기심 많을 때 귀히, 확실히 가르쳐라

한 번에 잘하여라.

처음에 호기심이 많은 때에 그럭저럭 가르치면

그 후에 다시 배울 때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여 안 배운다.

처음에 희망에 차고 호기심에 짝 차서 배우려고 할 때 귀히 가르쳐라.

나 예수가 한 말이니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실히 가르쳐야 된다.

내가 옆에서 보면 답답한 자도 있다. 유능한 자가 가르쳐라.

나머지는 배우라고 권장해 주고 전초하여라.

6)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데우고 하여라

“만일 <시간>이 지나서 ‘제맛’ 이 변했다면,
 처음보다 못하지만 ‘맛’ 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기가 식으면 ‘제맛’ 이 변하지만,
 다시 데워서 뜨겁게 하면 어느 정도 ‘맛’ 이 돌아온다.
 이와 같이 <할 시간>이 지나서 ‘제맛’ 이 변했더라도
 일하기 전에 다시 ‘마음과 생각’ 을 뜨겁게 하고 열을 내어
 흥분되게 만든 후에 행해라!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데우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전초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면,
 마치 ‘식은 음식을 먹는 것’ 과 같아서
 그것은 ‘맛없는 예배, 맛없는 모임, 맛없는 행실’ 이 된다.
 고로 어떤 일을 하든지
 제때, 제시간에, 감동했을 때, 마음이 흥분됐을 때 하고,
 제시간을 놓쳐서 맛이 변했다면
 다시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고 열을 낸 후에 해라.”

7) 극의 생각을 가지고 극으로 뜨겁게 행하기

<작은 일>이라도 ‘극’ 으로 해 버릇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강의하는 것도, 증거하는 것도, 전초하는 것도
 하나하나 ‘극의 생각을 가지고 극으로 뜨겁게 행하기’ 입니다.
 그러면 <큰 것>도 자신 있게 해집니다.
 <행한 자>만 됩니다. 그냥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위치에 선 자>는 다 ‘몸부림치고 행한 자’ 입니다.

8) 두 개를 해야 한다 : 설교 전초도 잘하고 본 설교도 잘하기

뭐든지 ‘하나’ 는 하기 쉽습니다. ‘두 개’ 를 하기 어렵습니다.
 <두 개를 한 자>는 ‘극에 서 있는 영웅’ 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 는 무엇일까요?
 <육의 것, 영의 것>입니다.
 <육의 것>도 하고, <영의 것>도 하기입니다.
 <자기 것>도 하고, <남의 것>도 해 주기입니다.
 <설교 전초>도 잘하고, <본 설교>도 잘하기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성령의 감동>도 일으키기입니다.
 <웅장>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기도 하기입니다.
 하루 시작인 <기도>도 잘하고, <하루 생활>도 잘하기입니다.

9) 두 겹줄로 전초

전도를 할 때도 두 명이 상대 한 명을 두고
 <한 명>은 ‘육적인 세례요한 격’ 으로 전초하고,
 <다른 한 명>은 ‘이 시대 새 복음’ 을 전해줘야
 ‘두 겹줄’ 이 되어 성공한다.

10) 강의하기 전에 먼저 100% 전초하라

말씀을 전할 때도 ‘핵’ 먼저 전하면,
 나머지는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핵>을 들었으니,
 <나머지>는 ‘핵에 속한 것’ 이라 생각하고
 마음이 뒤바뀌어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핵>을 깨달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 없이 지은 집’ 과 같아서
 세상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의 비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이 시대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맨 마지막에 <핵>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서 있게 질서 있게 가르쳐야 스스로 깨닫고 신앙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11)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먼저 전초해 주고 해야 된다

2.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우악스럽게 확확 전하고 끝난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이나?” 하면서 골 아파한다.
3.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먼저 전초해 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증거자’를 보내어 ‘전초’해 주고 역사를 펴셨다.
4. 자기가 급하다고 막 외치고 스틸 느끼고 끝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12) 예술인 <전초하는 사명자들>

예술인들도 예수님을 전초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섭리인들은 예술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자기 예술에만 빠지고 끝나면 이는 육적으로 빛나간 예술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예술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아멘.)
섭리사 예술인들은 예술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여 빛을 발
해야 합니다.

13) 전초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빨리 확인해야 한다

어떤 희망스러운 것을 들었을 때는 그 힘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그런 희
망스러운 것이 없으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초급 말씀 가지고는 싸워서 못 이기는 것입니다.
초급 말씀이 있고, 중급 말씀이 있고, 상급 말씀이 있습니다.
초급 말씀을 가지고는 시험 뽀박을 못 이깁니다.

중급 말씀을 가지고도 조금 힘듭니다. 막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상급 말씀을 주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아주 눌러가면서 의젓하게 이깁니다.

“야, 너희들 불쌍하다.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끝지 말고 빨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초 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를 확인하려고 전초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빨리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콩이나, 팔이나, 썩었냐, 복음을 기다리느냐

빨리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복음을 기다립니까? 어떤 새로운 역사의 복음을 기다립니까?

정말 잘되고 형통된 길을 기다립니까?”

“기다립니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반부터 어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은 초반부터 걸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듭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힘든 것입니다.

초반부터 어렵게 시작하지 말고, 가서 의식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구,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들어보실까요?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여러 수백 가지인데 이렇게 잘되는 것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까?

쉽게, 멋있게, 자신있게, 과감하게, 임금의 조서를 갖고 가는 사람처럼 의젓하게, 보람있게, 권세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잘못된 전초

1) 전초를 잘못하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

전초를 잘못하면 수십 명이 나가버립니다.
빨리 수료시켜서 전도 인원을 달성시키는 것만 목적하면 안 됩니다.
잘못 인식하고 나간 자가 악평하여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면 전도한 자는 완전히 실망하고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2) 자기를 나타내는 전초

육적인 신앙의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를 나타냅니다.
골이 텅텅 빈 자들입니다.
자기가 메시아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초하고 증거해 달라고 말씀을 주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초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다 해 버리고 끝낸 자들
입니다.
고로 “내가 주다. 메시아다. 재림주다.” 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재림주가 없습니다. 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주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초하며 소개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서 말하고 끝내는 자들은
진리를 벗어난 자들로서 이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7. ‘전초’와 성경인물

1)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초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에게 본 말씀에 앞서 전초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전초했습니다. 전초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또 있었습니까?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자들이어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이라도 역시 모두 전초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초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 다 말해 버리고 끝내고,
자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시대 중심인물들의 전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시대 중심인물들은
하나님께 배워서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전초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3)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여인은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그 말씀들을 증거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었

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미리 전초를 해 놓은 동네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즉시 환영하고 우러러봤습니다. 그래서 전초가 꼭 필요합니다.

4) 요셉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가 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팔던 그런 사고가 있는가 서서히 파악했습니다. 충격 주게 “형님, 나야.”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 안 받도록 서서히 전초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사상을 안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서 서서히 매력있게 나타났더니만 두려워하며 떨며 놀라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서서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을 두고 급하게 후닥닥거리며 확 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스릴있고 멋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해나갈 때 그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람들이 그런 찬스를 더욱 가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원리가 있고, 전도하는 요령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 있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급해서 해대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할 자를 발견했을 때 순서 있게 질서 있게 꼭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안됩니다.

5) 전초자 <세례요한>

-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앞의 것>을 깨달아야, <그다음 것>을 ‘그와 같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 <세례요한>은 ‘전초자’ 이고, <예수님>은 ‘실제 메시아’ 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한 말>을 깨달아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말>이 깨달아집니다.

25. 옛날 세례 요한은 자기 구상대로 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왔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초한 곳으로 예수님이 간 기록이 없었다. 전초의 사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6.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알았다.

고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 이벤트 하듯이 계획해서 만들어 놓고 주를 그 길로 가게 하지 못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 제일 크다. 그런데 이상하니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그럴까? 사명을 못했다. 사명은 큰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못했구나.”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명은 큰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전초자, 메시아를 증거하며 메시아를 말하는 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크게 못 했다는 것입니다.

8. ‘전초’와 <말씀> <성경>

1)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성경

사람이 먹는 것을 무엇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육신도 모두 발육에 지장이 없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먹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는데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어떤 것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 추위도 더위도 다 커버를 하고, 이에 해당되게 편하고 살 수 있고,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 시키면, 환경! 그런 것이 들어가요.

그리고 듣는 것을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늘 좋은 얘기 좋은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또 좌우되지요? 인생들이 살 때에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면 잘 먹어도 잘 지내도 마음이 편치 못하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는 이야기나 분 노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도 어떻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편치 못하지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걱정이 되는 말을 들으면 걱정, 근심이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말을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좋은 얘기를 늘 들어야 좀 못 먹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기쁘고 좋다는 것입니다.

위로적인 얘기를 듣는다, 기분 좋은 얘기를 듣는다, 소망과 희망적인 얘기를 듣는다.. 그렇지요?

선생은 어렸을 때도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훌륭하고, 예수님이 훌륭한데 그 얘기를 못 들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감동되고 감화되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또 정말 듣고 내가 행해야 될 일,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 기대가 그렇게 충만하게 많이 안 됐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의 가치를 깨닫기도 하지만, 아주 깊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도 깨닫게 되고, 기쁨도 깨닫게 됩니다. 그 정도는 성경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됩니다.

2) 성경은 하나님의 녹음 테이프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묵시와 암시와 징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으로 녹음되어있는 테이프(TAPE)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문학으로 녹음되어있는 문학적인 테이프 입니다.

하나님의 녹음 테이프 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어보는지 하니, 읽음으로 들어보아야 합니다.

읽음으로 들어보라! 성경은 모든 전체에게 묵시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싶거든, 이해하고 싶거든 성경을 읽어라.”

9. ‘전초’ 와 <하나님> <예수님>

1)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몰라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2) 가장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

‘가장 최고의 스승’은 근본자, 절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 주고,
그를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는 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4명 있습니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을 사대 성인으로 보고 인류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근본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을 믿고 따르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어라.” 했습니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 스승이요, 메시아입니다.

3) 하나님을 생각하라 찾아라

◇ 신앙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차원을 높이고 클수록 더 알고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상 육의 세계도 그 뜻의 신비하고 오묘함은 사람이 평생 커도 사람만큼만 보며 깨닫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봐야 깊이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의 생각도 차원이 낮고 영적으로도 차원이 낮으므로 보통으로만 보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태양과 지구와 달>이 크고 커도 작게 보이듯,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커도 자기 위치대로 그 정도만 알고 삽니다.

자기 차원대로, 인식대로 눈과 마음의 차원만큼만 보고 느끼고 압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사랑하여도 자기 수준대로 작게만 느끼고, 보고, 알게 됩니다. 전환되고 새롭게 해야만, 그 근원을 압니다.

10. ‘전초’와 <선생님>

1) 인생길,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선생은 10대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고
고민·번민·걱정·염려를 하고 살았다.
가르쳐 주면 그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도 찾고 다녔다.
알지도 못하고 살기만 하면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다고,
먼저 알고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며 알기를 원했다.
나에게는 단 하나의 인생길이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함이었다.

선생은 10대 초반부터 걱정·근심·염려의 짐, 고통의 짐, 일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생이 이같이 말하면 듣는 자들은
“10대 초반이면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인데, 그 나이에 무슨 인생의 짐과 일의 짐이 그렇게도 무겁고, 무슨 걱정·근심·염려의 짐이 그렇게도 많았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나이만큼 각각의 짐을 지고 일합니다. 인생을 알수록 더욱 인생의 짐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배고픈 고통, 헐벗은 고통, 일의 고통, 앞날이 막막한 고통, 현실에 찌든 마음의 고통, 현실에 희망 없는 고통들을 무섭게 겪고 삽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성서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인생을 이상적으로, 편안히, 고생하지 않으며 살고 싶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은 허리를 펴만한 여건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게 된 것이다.
가장 큰 것은 내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수도생활을 했고,

‘내가 남보다 미련하다. 무식하다. 남이 나보다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나의 무지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성경보며 말씀을 깨닫고 간 것이다.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인지...’ 하며 간구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가르쳐주겠다.’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보통 해서는 가르쳐준다고 하시지 않는다.

나도 처음에는 ‘나를 좀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매달렸다. 그 때는 어렸기 때문에 무조건 매달리고 간구하지만 컸을 때는 그것이 잘 안된다.

나의 문제는 인생 문제였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우쳐주셨다. 만일 한꺼번에 나를 깨우쳐 주셨다면 나는 오늘날 스승이 되지 못하고 요도방정을 떠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더기로 많이 가르쳐주신 것이 없었다. 인생의 근원, 창조의 근원을 깨닫는 데에 20년 가까이 걸렸다.

2) 먼저 인간의 도리와 이치와 법도를 배워야 한다

먼저 인간의 도리와 이치와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귀한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런 시대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전초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인생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것은 그런 생활을 안 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서 계속 명상만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받았을 것입니다. 생활을 해서 받으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실천하면 주고, 실천하면 그 잠언이 생각납니다. 그 단계에 가야 보입니다.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가야 거기에 해당되는 4월의 눈덩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쓰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5월달에 눈덩어리를 보고 시를 썼단 말인가?’ 하고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최고 정상에 올라가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극적인 위치에 살아야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고, 거짓도 없고, 역시 행위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3) 오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랑

- 하나님께 잘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 해서 이름난 것도 아니고, 춤을 잘 춰서 이름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을 연구해서 과학자로서 발견함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예수 잘 못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데에 신경 써야지.’ 하고 더 잘 믿고 더 잘 사랑하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오자가 아니면, 역시 제대로 살면 선구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그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누가 협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정신 가지고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것이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도였습니다. 올바른 도였습니다.

나의 교훈과 진리는 “오직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도와주며 잘해주고 살아라.” 그것이 나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오니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원 본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니까 좋아하며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잘해주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애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쫓기에 가지 않고 1등 해서 바로 옆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멀리 있으면 못 듣습니다. 이 세상의 이론을 볼 때도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옆에 가까이 있어야 들리지 멀리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무슨 말했어?” 해야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안에 있으면 나도 방 안에서 들을 정도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1등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1등 하려고 그 도전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데는 특별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1등 했다고 돈을 줄까? 부자 되게 할까?’ 그런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도전하고 사랑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돈 줄게요. 나 좀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줄게요. 가까이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도전하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도전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도 사야 되고, 거기에 실력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전하는 데에는 돈도 안 들어가고 자기 실력껏 자기의 몸뚱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지고 하고, 정신 가지고 하고, 행동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일생동안 그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것! 인간 최대의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며 왔습니다.

- “하늘을 보아라. 땅을 보아라.

세상에 그 누가 너를 매일 돕고 사랑하며 함께하겠느냐.

부모냐, 애인이냐, 세상 사람들이냐, 그 누구냐.

아무도 없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

오직 ‘주 하나님’ 과 ‘성령님’ 뿐이시다.”

-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만이

- 영과 육의 죽음에서 살려 주시고,
- 영도 육도 정신도 건강하게 해 주시고,
- 각종 문제와 어려움을 돕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 마음과 생각이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을 때

조용히, 혹은 강렬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며 “내가 있으니 가자.” 하셨습니다.

역시 ‘주 하나님과 성령님’ 이셨습니다.

- 선생님이 성장한 것을 보면,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앙을 하지 않고, 특별한 신앙을 했습니다.

산에서 수도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특별히 많이 하고, 성경도 특별히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하게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눈을 떴습니다. 이성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 사랑, 영적 사랑의 눈을 떴습니다. 존경하고 섬기고 위하고 순종하는 사랑의 눈을 떴습니다.

4) 조건을 세우는 인생

“민족이나 개인이나 이에 해당되는 축복의 조건을 세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원하기만 한다고 다 소원을 들어준다면 세상에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부자가 되었지.”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많은 생명들을 얻고 역사를 끌어온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조건을 세워서 끌고 왔습니다. 그냥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백 번, 천 번, 한 번에 5천 번씩 기도를 하고 5300번씩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원리를 알지요? 만 번 해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만 번을 해봐도 셋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원리는 뿌리 아니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나무가 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원리입니다. 근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잠언을 받고 깨달은 것입니다.

선생도 10대, 20대 때 고생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 10~15도일 때 대둔산과 기도굴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노방전도 하러 가장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성경도 최고로 많이 읽고 예수님께 배우고 깨달아서 성경에 인봉된 말씀을 시대 말씀으로 받고 새 시대를 예수님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극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최고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때 배고프고 가난하니, 하나님과 예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지난날 힘들 때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고, 기도하고 가까이했습니다.

선생이 옛날에 <70일 금식>할 때,
성령님이 “큰 조건을 세워라. 새 역사를 받고 행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듯이,
선생도 섭리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같은 타향 땅에서 7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참으로 여러 번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피골상절되어, 그 기간에 영계를 가장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수십 번을 혼수상태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났다 했습니다.
영의 세상에서 거의 살면서, 성경의 의문을 풀고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기도였기에

성령이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잡아 주셔서 안 죽고 산 것입니다.

1978년도까지는 <선생이 혼자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었다.
이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실제 행하는 조건’도 세우며 사탄을 완벽하게 이기고 나왔다.
<선생 한 명>이 사탄에게 지면, <전체>가 사탄에게 진 것이 되니까 절대
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10억, 20억 마리의 사탄과 마귀들이
와도 내 손가락 하나를 못 당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다.

전도하려면 이같은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3일, 7일 금식조건을 세우든지 7일, 70일, 100일, 1000일 조건 기도를
세워 사탄을 꺾고 인사탄들을 꺾는 조건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선생도 이같은 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72년도, 그리고 해외 나왔을 때 미국, 홍콩에서 21일 금식 조건을 세웠으
며, 기타 글을 쓰면서 글이 잘 되라고 집중하기 위해서 조건을 세웠고, 신
입생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중심한 각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조건 기도한다는 많은 편지를 받고, 40일 금식 기도 했다
는 많은 편지를 받고 선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임금에게
신하가 허락을 받는 입장과 같습니다.

5) 성경을 귀하게 보고 실천하며 배웠다

선생님도 이러한 모든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찾아
낸 것입니다. 성경을 1000독, 2000독 하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잘못 흘러가고 있다. 잘못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온다고?
아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하늘나라에 갔다 쉬었다가 몸을 갖고 온단 말이

야? 이거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경 2000독 읽고, 21년 기도하며 배운 말씀이다.

성경을 거의 실천하면서 배웠다. 죄 회개하고, 영하 15도에 못 먹고 굶으며 배웠다. 어느 때는 몇 달 동안 굶주리며 결심하고 배웠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2000독 해가면서 전쟁터 총 갖고 다니면서 성경 보면서 적이 오나 했습니다.

옆에서 전우들 모두 이야기합니다. ‘저분 성경 보면서 밀림 속 가고 있다. 우리는 총 들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성경 읽으면서 갔다.’

성경 처음 읽은 것이 아니라 수백 독씩 했는데도, 또 읽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이 머릿속에 꽉 차서 딴 생각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도록.

그러면서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봤습니다.

잠언같은 것도 너무 귀하게 보니까 5만 잠언을 5만 가지를 다 각종각색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강의하기까지는

약 40년 동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 합하면 거의 50년 동안 성경을 깊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회사 근무도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인생을 살고 그랬습니다.

11. ‘전초’와 <월명동>

* 월명동 구경만 말고, 하나하나 사연과 설명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말을 해 줘야 합니다.

* 한국의 각 지역마다, 지구촌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이 다 있다.
그러나 핵의 장소는 월명동이다.

* 절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은 ‘전초로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야심작>을 쌓을 때도

‘내 생각으로 쌓은 것’은 다섯 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다섯 번 쌓으면서 ‘전초’로 기술을 배운 후에,
여섯 번째에는 ‘하나님의 구상과 목적’대로
<야심작 백보좌 대(大)결작>을 만들었습니다.

* 우리는 ‘휴거된 하늘 신부’입니다.

이제는 옛것을 장사 지내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한 일>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아야 됩니다.

<자기>만 맞다고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어 보이고 쓰게 한 것>은

‘육’이 땅에서 육의 것을 쓰고 기뻐하듯 그와 같이 천국에 만들어 놓았
으니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 와서 영원히 쓰고 누리라 함을 깨닫게 한
것이다.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 자연성전은 하늘나라의 그림자같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상을 주시어 만든 것이다. 고로 그 가치가 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아버지와 내가 이 시대 너희를 위해 만든 대자연의 박물관과 유품을 보여 주며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말해 주어라.

그리하면 모두 기이히 여기면서 나의 말을 듣고 따른다.

* “환경의 에덴동산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냐?

우리 가보자. 네 것도 된다. 말씀을 듣고 가면 참으로 네 것도 된다”

이렇게 해나가기 바랍니다. 전도한 사람들을 월명동으로 데리고 가서 바람도 쐬고 오고 그러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나들이하며 바람을 쐬라는 것입니다.

* <월명동>은 ‘하나님의 백보좌 성전’입니다.

고로, 고르고 또 골라서 오늘날같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이니, 기쁨과 흥분이 일어납니다.

고로 월명동을 잘 소개하면서 ‘좋은 것들’을 잘 증거해 주면, 전도도 잘됩니다.

월명동 소개만 잘해도 전도될 자들이 많습니다.

고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연구해서 잘 소개해 봐요!

12. ‘전초’ 와 <인생>

모든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심이 무진장하게 강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갔지만 원(願)없이 실컷 살아보고 간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인들은 맨날 입으로 “죽어 버려야지, 죽어 버려야지!” 하면서도 정작 죽으라고 하면 노발대발을 합니다.

어떤 손자가 하도 자기 할머니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말을 하기에 피를 쫓습니다. 쥐약 병을 깨끗이 씻은 후 거기에다 가스명수를 넣어 놓고 자기 할머니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주며 말했답니다. “할머니 많이 잡수세요. 그리고 늘 죽어버린다고 하시는데 여기 쥐약이 있으니까 과자를 잡수신 후 드세요!” 그랬더니 과자를 집어던지면서 손자의 불테기를 쥐어뜯더라는 것입니다.

“뭘, 나더러 죽으라고? 이 놈, 너 쳐먹어라, 너 쳐먹어라! 내가 왜 죽냐?” “할머니가 맨날 죽는다고 하니까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제발 하지 마세요. 막상 죽는다고 하니까 무섭지요?” “말이 그렇지 내가 진짜 죽는단 말이나? 화가 나니까 그랬지!”

이와 같이 팔십의 노인도 죽으라고 하면 서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인생은 허무하게 살다 갑니다!

<약4:14>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웁도 말하기를 인생의 짧음이 너무 허탄하다고 했습니다.

<웁7:6>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웁14:1-2>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 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웁도 꽤나 인생살이 가치 있게 산다고 산 사람인데 그렇게 가치 있게 산 사람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더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웁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사 40:6-8>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

의 꽃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렇게 외쳐 주었습니다. 인생이 슬픔과 아픔과 고뇌 속에 산다하지만 죽음을 싫어하고 오랫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고전 15:19>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시 90:10>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죽음을 싫어하고,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죽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100년을 제대로 못살고 빌빌대다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시간이 가면 뜻이 이루어져 좋기는 좋지만 반면에 젊은 청춘이 늙어가고 얼굴이 쭈그러든다는 것입니다. 그 때 거울을 쳐다보며 아무리 분장, 단장, 화장을 해도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홍안의 소년미인들도 늙습니다. 항상 청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니! 나는 냉수 마찰만 해도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언니는 뭘 그렇게 쳐 바르고 돌아다녀? 그렇게 쳐 바르고 다니다가 땀이 나면 오히려 밧고랑처럼 패여서 흉하기만 더 흉한데!” 이같이 말하는 대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얼마 안 가서 뭘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날로 날로 사라져 갑니다. 그 때는 할 수 없이 언니를 찾는 것이지요. “언니, 무슨 화장품을 발라야 좋아지지? 나도 화장품 좀 써야 되겠어!” 믿습니까? 노래도 있습니다. “홍안 소년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저 적막한 공동묘지가 널 기다린다.”

이렇게 모두 인생의 슬픔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를 하면 슬퍼지고, 기쁜 이야기를 하면 기뻐지는 것인데 이 마당에 슬픈 이야기를 왜 하느냐구요? 인생의 슬픔을 제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외쳐주고 있습니다!

13. ‘전초’ 와 <사람> <인간>

<사람>이 ‘짐승’ 보다 훨씬 더 병도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음식을 태워 먹고, 맵고 짜게 먹으니까 그에 따라서 병도 많이 생깁니다.

또 <사람>이 ‘짐승’ 보다 사고도 많이 납니다. <짐승>에게는 ‘차 사고’도 없습니다. 사람이 치고 갈 때는 있어도 짐승 자체적으로 차 사고를 내는 일은 100% 없습니다. 왜요? <짐승>은 운전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활하려니까 운전을 해야 됩니다.

고로 100% <사람들>이 사고를 내서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또 ‘산업재해’도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생활하려니 공사도 하고 건물도 지어야 합니다.

고로 <사람>에게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 배우고,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활을 하더라도 사고를 줄이게 됩니다.

<인간>은

-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입니다.
- ‘전능하신 삼위일체 다음으로 최고의 존재’입니다.
- ‘만물의 영장’입니다.
- 하지만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살고,
- 자기 체질대로 먹고 즐기면서 살고,
- 조심하거나 주의하며 살지 않고,
- 목적을 두고 행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통도 오고, 병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가난도 겪고, 생활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12. 세상의 왕들도, 재벌도, 유명인도, 메시아도, 선지자도, 일반 사람들도 - ‘생명을 가진 인간’과 ‘모든 존재물’은 다 그러하다.

탄식과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고민과 번민과 의식주(衣食住)의 염려와 고

뇌가 계속 연속된다. -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 없이는 ‘인간 창조’가 불가능하니, 하나님은 이같이 인생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인간은 ‘절대신’이 아니니, <평안>을 누려도 ‘순간’만 누릴 뿐이다. 존재하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만큼 신경 쓰며 살아야 된다.

13. 방 안의 파리와 모기와 개미는 존재물이 작다.

고로 ‘사람’같이 걱정하고 번민하고 고뇌하지 않는다.

<개미>는 ‘전쟁과 경제, 현재와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최고로 많이 걱정하고 고뇌하며 산다.

그만큼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14. <날파리나 개미>는 ‘인간 같은 고민과 걱정’을 1억만 분의 1도 안 한다. <동물>도 ‘지능’이 높으면 그만큼 신경 쓰면서 산다.

<인간>이 최고로 많이 걱정하고 고뇌하고 신경 쓰면서 산다.

<인간>도 ‘지능’이 낮으면, 걱정·근심·염려를 안 한다.

15. 어린아이들은 어른만큼 걱정·염려·고민을 안 한다.

16. <인간>이 ‘전능자와 일체’되어 살 때는 - ‘걱정·염려·근심·고통’에서 벗어나게 창조해 놓으셨다.

<인간>이 무엇이나.

-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못 깨닫고 산다.

혹은 깨달아도 ‘자기 수준의 차원’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산다.

<인간>에 대해 합당하게 말할 것들이 많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가 곧 <인간>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왜 창조했겠느냐.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 창조’하셨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한 이유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사랑하며 살기 위함’인 것과 같다.

하나님도 이같이 <목적>을 두고, ‘육신 일생, 영 영원까지’ 사랑하며 살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긴 역사>를 두고 행하시고, <인생 일생>을 성장

시키며 해 나가신다.

그래도 믿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사니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제대로 못 산다.

* 사람은 누구든지 자꾸 해보면 늘게 되고
신이 될 수가 있다
누구든지 하면 할수록
경지에 달하게 된다

처음에는 무감각하고
두 번째는 아리송하고
세 번째는 조금 알게 되고
네 번째는 많이 알게 되고
다섯 번째는 깨닫게 되며
여섯 번째는 혼자 할 수 있게 되고
일곱 번째는 자신이 생기며
여덟 번째는 가르쳐줄 선생이 되고
아홉 번째는 박사가 되어 연구하고 이해하며
열 번째는 전문가가 되고
열한 번째는 도사가 되어 행케 되고
열두 번째는 초인이 되어 거침이 없고
열세 번째는 신이 되어 행하며
열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다

14. ‘전초’와 <정신 생각 마음>

1) 생각에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 ◆ 원효대사는 불경을 배우기 위해 결심하고 당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해마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결국 동굴 같은 곳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원효는 캄캄한 밤중에 목이 타서 주변을 둘러보다
바가지에 물이 담긴 것을 보고 그 물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아침에 깨서 보니, 밤에 마신 물은 바가지에 담긴 물이 아닌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습니다.
자기가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나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원효는 ‘해골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그릇에 담긴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자.’ 하고 생각을 달리하니,
하던 구역질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깨달은 원효는
‘위치가 문제가 아니다. 이곳에서 나를 닦으면 된다.’ 하고
당나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 이같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고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 <생각>을 좋게 하려면, 자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길밖에 없다.
-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본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 <위대한 생각>을 하려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
-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다 ‘생각’을 잘해서 성공했다.
- <생각>을 좋게 하면, 그것이 마음의 보물이다.

- <생각>에서 ‘돈’도 벌고, ‘잘됨’도 시작된다.
- <몸 닦기, 마음 닦기, 생각 닦기>다.
 <마음, 정신, 생각, 몸>을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기다.
- ◆ 모두 <생각의 영웅>이 되고, <생각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생각의 신’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 ◆ <생각>에서 ‘초능력’이 일어납니다.
 <생각>에서 ‘축지’도 합니다.
 정신일도 하면, 순간 행하게 됩니다.

2) 마음을 두드려라

어느 제자가 졸업 작품을 한다고 나에게 구상을 하나 달라고 해서 스님이 목탁을 칠 때 쓰는 나무 채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이 보면 놀라겠다 할 정도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나고 했을 때 “목탁만, 죽은 나무만 두드리지 말고 마음을 두드려라. 그래야 큰 중이 되리라. 마음을 두드리는 자가 큰 중이다.” 그런 의미로 그 구상을 주었는데 과연 그 졸업작품을 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교수도 어떻게 그런 구상을 했느냐고 하며 만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왜 죄 없는 옷을 찢느냐? 가슴팍을 쥐어뜯고 울고 그러느냐?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해야지. 잘못된 마음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엘2:13).

15. ‘전초’와 <가치성>

1)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나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알 것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고, 혹은 ‘몰라서’ 얻은 것을 헐값에 팔고 산다. 얼마나 억울하나.

어떤 자는 몰라서 150억짜리 보물을 몰라보고 밭로 차고 가고, 아는 자는 주워다 150억을 받고 팔아 일생 동안 쓰고 살기도 한다.

‘알면’ 지옥을 밭로 차 버리고, ‘모르면’ 돈을 들여 가면서 지옥으로 간다. ‘알면’ 알고 행하여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모르니’ 우상을 절대 신으로 믿고 창조자로 믿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니’ 자기가 믿는 자의 영이 지옥에 가 있는데도 그를 믿음으로 사후에 좋은 세계에 가려고 일생을 바쳐 믿고 산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나.

2) 가치에 눈을 뜬 자

나무에 대해 눈을 못 뜨면, 1억짜리 나무도 베다가 땀감으로 쓴다.

수석에 대해 눈을 못 뜨면, 밭을 파다가 3억짜리 돌이 나와도

“우리 밭에 못된 돌들이 많다.” 하며 망치를 가져다 깨부수고

“속이 시원하다! 이제 밭을 갈아도 안 걸려서 좋다!” 하며 기뻐한다.

그러다 나무나 수석에 눈을 떠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탄식하고 통곡한다.

나무나 수석에 눈을 떴다면,

그것을 팔아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을 것이다.

몰라서 미친 짓 하고, 몰라서 아둔한 짓 하고,

몰라서 미련한 짓 하고, 몰라서 바보 짓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영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가 자기 영을 사망으로 버리게 된다.

그러니 미친 자요, 무지자요, 아둔한 자요, 미련한 자가 아니냐.

3) 바이올린과 영혼의 가치

스페인의 어느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다.

바이올린에 눈을 뜬 한 사람이 한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무리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졌어도 어떻게 그리 귀한 것을 가지고 놀고 있어? 장난감 사 줄 테니, 그것 나 줘.” 했다.

어린이들은 “누가 이사 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렸기에 주웠는데, 아저씨 가져요.” 했다.

그는 그 바이올린을 갖다가 감정했는데,

알고 보니 세계에 150개밖에 없는 이태리 바이올린으로,

150년 전에 만든 진품이었다. 160억을 받고 팔았다.

그 바이올린을 버린 사람은 미련한 자가 아니냐. 아둔한 자가 아니냐.

정신 나간 자가 아니냐. 무지하여 눈을 못 뜨고 미련하면 그렇다.

너희 영은 너희 몸에 있다. 그 귀한 영을 바이올린에 비하겠느냐.

수십억으로 계산해도 값을 따질 수 없는 영혼이다.

그 영을 위해 살면, 네 육도 잘되고 영도 잘된다.

4) 가치를 알아본 자가 주인이 된다

어떤 나라의 한 사람이 땅을 파다가

조상 때 묻은 도자기 하나를 발견했다.

파란빛이 나고 고귀해 보여서 알아보니 ‘고려시대 청자기’였다.

그런데 자기 나라는 후진국이라 환율이 낮으니, 환율이 높은 나라의 사람 중에서 친한 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아 달라고 했다.

그들은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극비로 꼭 팔아 주겠다고 했다.

“얼마에 팔아 주면 되겠냐?” 하니,

“네 나라에 가서는 4000만 원을 받지 않겠냐.

4000만 원은 꼭 받아 줘.” 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이 도자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도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보이며 말했다.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그 사람은 3000만 원 이상은 못 사겠다고 해서
도자기를 알고 사고 판매하는 더 큰 곳으로 갔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서 도자기를 사겠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9000만 원 정도면 사겠다.” 했다.
이에 그는 얼른 도자기를 팔고,
도자기 주인에게 그대로 돈을 갖다 주었다.
도자기 주인은 부탁한 사람에게 “너는 참으로 정직하다.” 하면서,
그를 신임하고 그 나라에서 하는 다른 큰 일을 맡겼다.
9000만 원을 주고 도자기를 산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도자기를 팔았는데 9억을 주고 팔았다.
9억을 주고 도자기를 산 사람은
자기 박물관에 넣어 놓고 애지중지하며 보았다.
도자기가 정말 빛이 나고 좋았다.
알아보니, 그 도자기는 국보로서 90억의 가치가 나간다고 했다.
도자기를 팔고 사는 자들이 도자기 값이 얼마인지 몰랐던 것이다.
그 가치를 알아본 자가 결국 주인이 되었다.

16. ‘전초’ 와 <시간>

1) 일생 100년은 하루도 안된다. 하나님을 찾고 사는 인생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우리 일생 100년은 하루도 안됩니다. 똑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하루 사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나라 천년이 우리의 1년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끝이 없는 그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100년은 1초도 안됩니다. 1초의 1/10억만도 안됩니다. 그런 시간을 살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부귀를 꿈꾸겠습니까? 꿈꾸고 싶으면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두 가지 일은 못합니다. 그 시간에는 “하-” 자 찾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지가치 일로 그 시간을 다 쪼개놓고서 하나님 소리는 마지막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의 자식으로도 봐야 하지만, 자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소리 제대로 한번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던데요?” “어느 때냐?” “인생 살다 보면 죽을 고비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다 찾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냐? 자기가 어려워서 찾는 것이지. 자기가 어려워서 찾는 것과 고마워서 찾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셨습니다.

고마워서 찾는 것이 도입니다. 벼락이 치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살다보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것이 도입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불쌍하게 살지만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요? 동에 있는지 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도입니다. 도통했다는 것입니다. 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원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2) 하루가 일생 같다. 매일 잘해야, 매일 성공하는 것이다

◇ 선생은 ‘인생의 삶’에 대해 배우려고

인생 일생을 축소한 ‘하루의 삶’에서 수백 번을 반복하며
인생 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일생 같다’는 도표를 깨닫고 배웠습니다.

이 도표를 그려 놓고 시간을 계산해 보고

시간을 아끼며 신앙생활을 하며

의를 행하는 데만 밤낮의 시간을 썼습니다.

‘하루’를 그럭저럭 살면, ‘일주일’을 그럭저럭하게 살게 되고

‘일주일’을 그럭저럭 살면, ‘한 달’을 그럭저럭 살게 되고

‘한 달’을 그럭저럭 살면, ‘1년’을 그럭저럭 살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잘해야, 매일 성공하는 것입니다.

◇ 시간을 뺏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왕궁을 주고 돈과 명예를 큰 산만큼 쥐도 쓰지 못합니다.

시간이 금과 보화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3)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 모르고 살면, ‘자기 인생의 황금 시간’을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 <시간>은 한 번 가면,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됩니다.

고로 그 시간에

‘<육>을 위해 행했느냐, <영>을 위해 행했느냐’가 중합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 - ‘육의 것’도 하고,

<영>이 영생하기 위해 - ‘영의 것’도 해야 됩니다.

이같이 했으면,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여 ‘실체를 남긴 자’입니다.

◆ 어떤 자는 몰라서 못 하고, 어떤 자는 배워서 알았어도 안 합니다.

<귀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열 일을 제치고 해야 됩니다.

해야, ‘죽은 시간’과 바꾸게 됩니다.

<죽은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없어지는 것>을 ‘영원히 남아지는 것으로 바꾸는 자’ 가지혜 있는 자요,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쓰는 자입니다.

◆ <시간의 선물>은 매일 줍니다.

다만,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저마다 ‘자기 차원’ 대로 시간을 쓰게 되니,

<황금 시간>으로 귀히 쓰려면 ‘차원’을 높여 행하기 바랍니다.

◆ <영에 속한 시간>으로 귀하게 차원 높여 쓰면

- 어떤 것은 ‘일생’ 동안 쓰고,
- 어떤 것은 ‘천 년’ 동안 쓰게 됩니다.

반면, 자기 인생의 귀한 시간을 <육>에 속해 쓰면,

- 얻는 것도 작고,
- 후(後)에 가서 남는 것도 없습니다.

마치 ‘소모품’과 같아서 ‘한때’ 쓰고 끝납니다.

17. ‘전초’ 와 <사랑>

1) 아가페 사랑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Eros) 또 아가페(Agape)적인 사랑,
두가지가 있는데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일반적인 육적인 세계에서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다. 사랑하면 이성 사랑 생각하냐? 아가페 사랑이다.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 사랑,
이성 사랑 100% 빼고 정신적, 영적 사랑해라.
맘과 뜻과 목숨 다해 미련 없이 행하여라.
영원토록 미련 없이 살아라.

사람이 서로 껴안고 연애만 한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성적인 사랑은 개인의 사랑입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해봤자 둘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사랑은 온 인류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나라도 사랑하고, 수만 명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랑으로는 돌을 못 사랑합니다.

돌을 껴안고 뒹굴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사랑은 전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도 이성적인 사랑을 하다가 끝나 버렸습니다.

정신적인 사랑은 온 인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애로가 많고, 아가페적 사랑은 향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신(神)을 사랑하는 세계! 100% 사랑했다 해도 누가 흠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몽창 그를 위해서 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로스적 사랑은 놔두고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는데도, 유대 종교가 왜 덩병에 갇혀 있을까요? 왜 연못처럼 갇혀 있을까요?? 왜, 우물 안에 들은 개구리가 되었을까요? 왜 썩은 시궁창의 물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시대적인 진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시대를 쫓지 못하면 안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이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산골짜 골짜 골짜에 들어가서 도토리만한 한 인생(예수)을 잡고서 섭리를 하고 있는 것과 그를 중 심해서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받아 들 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성공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 나님을 사랑했다라면 망할리가 만무합니다.

2) 사랑하라

◆ 선생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을 때,

한번은 <베트남 밀림에서 작전을 할 때>였습니다.

적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먼저 내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즉시’ 안 가니, 같은 말씀이 또 들렸습니다.

가서 적을 껴안고 사랑으로 대하니, 적도 나도 살았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행하기 바랍니다!

◆ 그때 살려 준 적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는 안 던지고 있었습니다.

깔고 앉아 있다가, 엉덩이 밑에서 수류탄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이때 ‘순간’ <영감>이 와서 내가 빼앗아 던지려 하니,

그는 위험하다고 내게 주지 않고 바위 너머로 집어던졌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던 수류탄이 날아갔고, 그 즉시 터졌습니다.
그때 ‘즉시’ 수류탄을 안 던졌으면, 적도 나도 즉사했을 것입니다.
영감이 왔을 때 ‘즉시’ 행하여 살았습니다.
모두 이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 성공합니다.

18. ‘전초’와 <성공> <실패>

1) 인생 삶 속에서 <성공과 승리>

- ◆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승리>는 얼마나 빨리하느냐, 얼마나 고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 ◆ 또한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냐,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 ◆ <빠른 자>가 승리하고, 상도 받고, 그 센터의 것을 얻습니다.
- ◆ <고치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 ◆ <많이 하는 자>가 승리하고 많이 얻습니다.
- ◆ <최고로 의로운 자>가 의의 성공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것을 얻습니다.
- ◆ 그 존재 세계에서 <가득할 것을 최고로 갖춘 자>가 최고의 승리자가 되고, 최고의 것을 얻습니다.
- ◆ 최고로 빨리하기, 최고로 고치기, 최고로 많이 하기, 최고로 의롭게 살기, 최고로 갖추기. -입니다.
- ◆ 운동경기에서 <승리>를 결정할 때도 최고로 빠르거나, 최고로 많이 했는가 -로 결정합니다.
-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삶 속에서도 <성공과 승리>는 빠르기, 고치기, 많이 하기, 의롭게 하기, 갖추기 -로 결정된다.
하나님도 ‘뜻’을 두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얻으려면, 이것들을 행해라.”
- ◆ 신앙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 ① 빠른 자,
 - ② 자기 모순과 부족과 생각과 행위를 고치는 자,
 - ③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많이 하는 자,
 - ④ 최고로 의를 행하는 자,
 - ⑤ 자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갖춘 자가 승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얻게 됩니다.

2) 성공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된대요.

열심, 노력, 타산!

“〈열심〉으로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타산〉이 맞는가 보자.”

그리고 사람이 성공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

그리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부터 시간을 쓰면, 시간적인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성공. 확대시킨 세계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축소시켜서 하루의 시간을 성공하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적 성공이 안 되면 어디서 시간이 먹어 들어갔냐, 이것을 보면 됩니다.

3) 영원토록 성공한 자

세상에 사는 기간은

잠자는 시간 빼고, 걱정·근심·염려하는 시간 빼고, 잡시간 빼고 나면, 불과 몇십 년 사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각종으로 극적인 영광을 받는다고 하여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 놓고

영을 위해 완전하게 살아야, 육과 영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 자가 세상에서 최고로 육도, 영도 성공한 자이며

영원토록 성공한 자입니다.